

## FCC, 번호이동성 구현에 관한 2차 보고서 발표

FCC는 8월 18일, 장거리통화의 번호이동성 구현에 관한 2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차 보고서는 지난 1996년 6월에 발표되었다. (참고, 박진현, 「미국의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 정책 동향」, 『정보통신정책』, 제9권3호 통권 180호, 1997. 2. 17., pp.31~48.)

이 보고서는 앞서 북미번호관리위원회(North American Numbering Council: NANC)가 FCC에 제출한 권고안을 대체로 수용한 것이다. NANC의 권고안에서는 통신산업 전부분의 거대하고도 단일화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FCC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번호이동성 구현의 1단계 시점인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장거리통화의 번호이동성 구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사업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번호이동성의 구현은 1996년 통신법에서 모든 지역전화사업자들에게 부여한 의무 조항으로, 이는 규제완화와 경쟁지향이라는 정책적 틀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미 의회도 이러한 번호이동성 구현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지역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하여 지역전화시장에 경쟁을 확대시키고, 이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번호이동성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전화번호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서비스, 품질, 가격에 의해 지역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번호이동성 구현에 관한 2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7개의 번호이동성 데이터베이스 지역을 현재의 지역별 벨전화회사(Bell Operating Company: BOC)의 지역과 일치시키자는 NANC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둘째, 지역별 번호이동성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Lockheed Martin IMS와 Perot Systems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것 역시 NANC의 권고사항이었다.

셋째, 유선사업자에 의한 번호이동성 제공을 위한 기술 및 운영 표준에 대한 NANC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 내용에는, 유선전화사업자는 자기지역 발신에 대한 호를 착신측 지역전화사업자에게 전달할 때 번호이동성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역할을 발신측 사업자가 수행해야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NANC와 FCC 모두 이러한 방법이 번호이동성을 구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넷째, FCC는 이동통신(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CMRS)사업자들에 의한 번호이동성 구현에 관한 표준과 절차를 개발하라고 NANC에 지시했다.

다섯째, FCC는 각 BOC 지역내에 사업자들에 의해 이미 설립된 제한적인 통신사업자들(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이 지역전화서비스의 번호이동성 관리자들을 관리/감독하게 하자는 NANC의 권고를 잠정적으로 채택하면서, 이를 NANC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잠정적인 조치로 FCC와 통신사업자들은 번호이동성 구현이라는 실제적인 경험을 획득하게 되고, LLCs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섯째, FCC는 지역전화서비스의 번호이동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수행을 NANC에 전담시켰다. 번호이동성 구현에 관한 미래의 고려사항들을 전달하는 것은 NANC의 경험에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FCC는 기간통신사업국(Common Carrier Bureau)의 국장을 의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가 100대 대형시장에서의 번호이동성 구현에 대하여 감독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진기)